

지역 매 아리

정읍시, 2019년 사업체조사 실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정읍시 소재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12,415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26회째를 맞는 사업체조사는 전국 단위 조사로 해마다 산업전반에 대한 지역별 분포와 고용구조 등을 파악하여 정부 정책수립·평가, 기업경영계획 수립·학술연구 기초 자료, 지역소득추계(GRDP)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항목으로는 사업체명, 대표자명, 대표자 성별, 대표자 연령, 소재지, 창설연월,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체 여부 등 14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적기에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사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관내 모든 사업체가 빠짐없이 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에 조사되는 통계자료는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통계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조사원이 사업체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정읍시,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이달까지 납부하세요"

정읍시는 2019년도 정기분 공유(일반) 재산 대부료 539건에 대해 9600여만원을 부과했다.

대부료는 시와 대부계약 체결한 토지·건물 대부자에게 개별공시지가 등 당해 재산평가가격에 일정요율을 적용해 연회 부과되며 올해 대부료 납기는 이달 28일까지이다.

올해 대부료는 기존 수기 대부대장의 대조작업을 거쳐 전산대부대장(541필지, 25만5,197㎡)을 구축 후 대부료를 부과함으로써 오류 부과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전산대부대장은 대부계약자와 주민전산과 연계하여 대부물건의 분할, 합병, 매각 등 이동사항 연계처리가 가능하고, 대부대장의 읍면동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 뿐 아니라 민원의 편리성도 크게 향상시켰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기 경과 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또한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대부지는 납기가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농생명식품 분야의 핵심기관으로

고창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각 분야 전문가 초청 연구소 발전방안 토론회 열어

고창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유기상 군수)가 고창군 농생명식품 활성화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8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연구소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는 지난해 연구소 성과보고를 시작으로,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차선우 소장이 지자체 출연 연구소 운영 현황과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차 소장은 "민선 7기 고창군의 제1번 군정방침인 농생명 식품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군청, 의회, 농가 및 식품가공업계가 연계 돼 협업이 이뤄져야 연구소의 본연의 역할을 발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학 교수(전남대학교 식품공학과)는 연구소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해 "고창군 지역의 농생명 소재를 활용한 의약품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정호 의원(고창군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은 "인삼, 더덕, 영경귀 등 고창에서 자란 토종 양용작물 재배 및 기능성 제품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견을 더 했다.

또 신동화 소장(신동화식품연구소, 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을 좌장으로 임정호 의원(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배기영 과장(고창군 농어촌식품과), 이영은 교수(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등이 참석해 군민과 연구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약 1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구소와의 업무와 역할

에 대한 인식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재배 및 육종 연구, 농업기술지도 등을 담당하고, 연구소는 식품가공, 기능성 연구, 가공기술 교육 등의 역할 등을 맡고 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지역 농민과 업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연구소를 강조했다. 앞서 연구소는 농식품 소스 생산지원센터를 개관하고 기술개발, 생산, 홍보(유통),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고창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조성욱 소장은 "고창군의 농생명식품 분야의 핵심기관으로 매년 군민과 농가(식품기업)등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더 발전하는 연구가 될 수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에서 오는 15일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을 맞이하여 고부봉기 재현행사를 개최한다.

사람답게 살고자 했던 농민군의 염원 담아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 고부봉기 재현행사 개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시에서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을 맞이하여 고부봉기 재현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이평면 일원에서 열리는 행사는 (사)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이사장 박종신)가 주관하고, 이평·고부·덕천·영원·소성·정우면 등 6개 면민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기념제 1부는 1894년 1월 고부봉기의 서막을 알리는 재현행사로, 최초 혁명을 모의했던 예동

마을에서부터 말목장터와 감나무까지 농민군 진군행렬이 진행된 것이다. 고부군수 조병갑을 몰아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자 했던 당시 농민군의 염원을 담은 진군행렬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다.

기념제 2부는 신(新)사발통문 작성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미래를 살아야 할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관내 기관 단체장과 동학 관계자, 지역주민 등 다수가 참석한 기념식이 진행되며 마지막

에는 고부봉기 격문이 낭독된다. 3부는 정읍시립극단의 문화예술 공연으로 고부봉기 재현행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의 원년이자, 국가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시작되는 첫해로 다양한 선상 사업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널리 알리고 아울러 2019~2020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일자리 창출로 군민소득 향상에 최선을"

부안군, 관내 11개 업체와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 협약 체결

부안군이 코센·한국폴리우드 등 관내 11개 업체와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관내 기업이 청년을 상시근로인원 외에 더 채용하도록 촉진하고 청년은 현장실무 후 정규직 전환해 청년실업 및 기업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협약에서는 코센과 티앤아이, 시영, 거상, 부김농산, 산들바다유기농업, 바다의 향기, 한국폴리우드, 오성산업, 미투건설, 부안클린케어 등 관내 11개 업체가 참여해 부안군 청년·신중년 17명을 채용하기로 협약했다. 협약에 따라 부안군은 청년을 채용할 경우 해당 기업에 1인당 월 50~65만원(급여 200만원 이상 65만원, 190~200만원 미만 60만원,

180~190만원 미만 50만원)을 12개월간 차등 지원한다.

취업청년에게도 2년 근속시 취업장려금 최대 300만원(6·12·24개월 각각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중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7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되며 취업신중년에게도 2년 근속시 최대 200만원(6·12개월 각각 50만원, 24개월 100만원)이 지원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구인난 해소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농기술센터, 고급화 블루베리 재배기술 교육 실시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재현, 이하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일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교육을 가졌다.

블루베리는 매년 새 가지 발생이 많은 특성을 갖고 있어 방치하면 수세가 약해지고 과실 생산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품질고급화와 지속적인 과실 생산을 위한 전정기술은 필수적이다.

관련해 정읍 블루베리연합연구회원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재배년수에 따른 전정법, 전정 후 꽃눈관리, 블루베리 토양관리를 위한 시비법 개선 등 영농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기술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

시됐다.

또한 한국의 블루베리 산업 발전요건을 품질·품위·평종의 3품(品)으로 제시하고, 양분관리, 전정의 효율적순서, 주축지 형성 유도법과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근관확보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을 위한 시비개선법, 병해충 방제법 등에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이 있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안내하며 블루베리 농가들이 등록된 농약과 사용량을 준수하여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출범... 체육활동 저변 확대 시동

고창군 장애인체육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지역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증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고창군 장애인체육회(회장 유기상)가 지난 7일 오후 고창군청 상화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상임부회장 이호근, 부회장 6명, 이사 12명, 감사 2명으로 임원을 구성했고, 위촉장과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안전심사에서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설립취지를 설명하고 규약심의, 사무국 운영 규정심의,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등을 심의·의결 했다.

앞으로 고창군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각 경기종목 육성과 지도에 관한 활동, 각종 행사 주관 및 지원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앞서 고창군 등은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24일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역 내 장애인체육인,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창립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실무회의를 열어 규약, 사업계획 초안구성 등 사전준비를 내실 있게 진행해왔다.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조차영 사무국장은 "이달내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에 지부 승인 요청으로 빠른 시일내 승인 완료할 계획이다"며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을 뿐 실질적으로 설립은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운동용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부안강산뽕주',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alcohol content.